

고베 도시경영의 계보와 ‘부흥재해’

한신대지진 이후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박승현

1. 들어가며

필자는 한신·아와지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 이하 한신대지진)로부터 25년이 되는 2020년 1월 17일 즈음 나가타(長田)지역 필드워크¹를 위해 고베에 머물렀다. 당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히사모토 기조(久元喜造) 고베시장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고베시장은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 ‘실패’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재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될 것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반

박승현(朴承賢)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일본학전공 조교수.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졸업 후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에서 도쿄 대규모 공공단지의 고령화와 재건축에 관한 인류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해와 시민사회, 인구변동, 거주와 복지 등을 주제로 일본 사회문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 『老いゆく団地: ある都営住宅の高齢化と建替え』(2019) 『재일한인의 인류학』(2021, 공저), 최근 논문으로 「일극집중사회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중앙-지방, 중앙정부-지자체의 역동」(2021, 공저), 「코로나19 팬데믹과 불안억제사회 일본: 재난공동체의 불안과 자숙, 그리고 연대」(2020)가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6.268>

복했다. 고베에서는 대지진으로부터의 25년을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한신대지진 이후에 태어나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한신대지진의 피해와 그 교훈을 잊지 않도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같이 한신대지진의 기억이 풍화되어 가는 시점에 한신대지진 피해지 부흥의 ‘재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은 한편 놀라운 사실이었다.¹

1995년 1월 17일 화요일 오전 5시 46분, 아와지섬 북부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했다. 도시직하형 지진의 피해는 막심하여, 사망자 6,434명, 주택피해 약 64만 동, 피해총액은 약 9조 9,000억 엔에 이르렀다.²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오전 6시에 TV를 통해 지진 발생 사실을 알았고 비서관으로부터 정식보고를 받은 것은 7시 30분이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지진발생 직후 피해규모와 심각성을 파악하고 상황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으며, 긴급구조와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동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키웠다.³ 전후 처음으로 정부의 비상시 대응, 위기관리 능력이 현실적으로 추구를 당했고, 고베 지역은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으며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거대지진이었던다는 변명이 뒤따랐다.

대규모 ‘부흥’계획은 지진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1995년 3월 17일 고베시는 18개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6개 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부흥도시계획사업을 발표한다. 이 중 <신나가타역남지

1 필자는 당시 필드워크를 통해 고베 구두마을 나가타의 인류학적 지형과 재일코리안의 생활세계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였다. 나가타지역은 성냥, 고무, 그리고 케미컬슈즈로 이어지는 지역산업의 현장이고 재일코리안 집주지이며, ‘케미컬슈즈’는 고베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인 동시에 재일(在日)산업이다(박승현, 「고베 구두마을 나가타와 재일코리안의 ‘케미컬슈즈’」, 지은숙 등 편, 『재일한인의 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 피해 규모는 주택, 점포, 공장 등의 건축물 약 5조 8,000억 엔, 항만과 도로 등의 사회기반 약 2조 2,000억 엔, 라이프라인 약 6,000억 엔에 달했다. 피해총액 9조 9,268억 엔은 일본 국가 예산규모(2014년도 일반회계 95조 9,000억 엔)의 약 10%에 달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액은 약 16조 9,000억 엔으로 추산된다. 神戸新聞データで見る阪神淡路大震災, <https://www.kobe-np.co.jp/rentoku/sinsai/graph/sp/p1.shtml>(최종검색일: 2022. 1. 17.) .

3 이원덕, 「고베지진과 일본정부의 위기관리」, 김경동 편, 『일본 사회의 재해관리: 고베지진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50~52, 66쪽.

구) 재개발사업은 가장 큰 규모로, 약 20.1ha 부지의 7개 구역에 2003년까지 44개 동의 재개발빌딩 건설, 주택 2,586호 정비, 5만 2,200m² 상업면적을 조성하여 고베 서쪽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세워진다.

고베시는 본래 도시행정의 경영 수완을 발휘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공공디벨로퍼’로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온 도시이다.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운다’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방식, 즉 롯코산⁴을 깎아 대규모 뉴타운을 만들고 산을 깎아 낸 토사로 바다를 매립하여 포트아일랜드(1966년 착공, 1981년 완공), 롯코아일랜드(1972년 착공, 1988년 완공)와 같은 첨단인공섬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전국의 공무원들이 1981년 포트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포트피아 엑스포(Portopia Expo)를 참관하러 왔으며, ‘주식회사 고베’라는 부러움 섞인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고베 도시계획은 개발 및 성장주의가 강한 일본형 도시계획 중에서도 ‘큰 스케일과 세련된 방식’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이는 시정부가 개발업자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비정치적인 열망을 경제적 개발의 추구라는 목표에 어떻게 결집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토건국가’⁵ 모델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고베시의 성과들이 한신대지진으로 무너져 내렸다. 도시직하형 지진이었기에 붕괴의 충격은 고층빌딩이나 고속도로 등 도시 인프라에서 두드러졌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도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라이프라인이 기능하지 못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994년 4월에 개통된 한신고속도로는 10여 곳이 붕괴되었고 산요신칸센이 끊겼으며, 포트아일랜드와 롯코아일랜드는 지반이 액상화를 일으키며 침하했다. 도시인프라와 공공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260만 가구가 정전이 되었고, 고베시의

4 고베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약 100만 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지각변동이 반복되면서 해발 1,000미터의 롯코 산지가 동서로 펼쳐져 있으며, 산지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시가지의 토대를 만들었다. 롯코산이 융기한 것과는 반대로 바다 쪽은 깊게 가라앉아 수심이 깊어 선박 정박이 유리한 국제적 항만도시로 발전했다(조 지무쇼, 전선영 옮김, 『이국적 낭만과 지진의 아픔이 공존하는 국제 도시』, 『30개 도시로 읽는 일본사』, 다산북스, 2021, 284~285쪽.

5 개빈 매크맥, 한경구 등 옮김,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비평사, 1998, 51~116쪽.

49만 5,300세대에 수도가 끊겼다.⁶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기에 한신대지진의 피해는 불량주거 및 고령자에 집중된 ‘인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신대지진 기록사진 중 완전히 불타 폐허가 된 모습으로 자주 비추어지는 곳이 바로 나가타(長田)지역이다. 나가타구는 목조주택과 영세 공장, 상점이 밀집한 지역으로, 가옥 붕괴로 인한 압사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고베시 전체의 건물 붕괴 비율(倒壊率)이 30.8%였는데 나가타구는 그 두 배에 가까운 57.2%로, 2만 3,803동이 무너졌다. 한신대지진 당시 나가타구에는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 38%를 차지하여 고베시 평균 18.9%의 두 배가 넘었다. 전소(全燒) 건물 수도 고베시 전체 6,965동 중 나가타구에 4,759동이 집중되었다. 교통통제에 실패해 소방차의 출동도 늦었지만, 필요한 소방수(消防水)를 확보하지 못해 17일과 18일에 나가타구의 48만m²가 불탔다.⁷ 구두산업 중심의 주공(住工)혼재지역이었던 나가타는 주택과 공장의 약 80%가 붕괴되었고, 지진 전 약 5만 명을 고용하던 이들 공장들의 설비시설이 파괴되면서 케미컬슈즈는 1993년 684억 엔에서 1995년 285억 엔으로 절반 이상 생산고가 하락했다.⁸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구역의 피해상황을 보면, 건물 붕괴와 소실은 83%에 달했고, 피해가 없는 건물은 구역 전체의 8%에 불과했다.⁹ 소유관계와 이해관계, 생산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상호 밀접하게 얽혀 있는 오래된 시가지가 대지진으로 잣더미가 된 것이다.

1945년 전후의 폐허에서 쌓아 올린 고베는 50년 후 다시 폐허가 되었고, 도시계획자들은 이를 고베시를 새로이 재생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¹⁰ 재난 이전부터 이미 ‘서부 부도심’으로 낙점이 되어 있었던 나가타

6 神戸新聞データで見る阪神淡路大震災. <https://www.kobe-np.co.jp/rentoku/sinsai/graph/sp/p3.shtml>(최종검색일: 2022. 1. 17.).

7 神戸市 長田区. <https://www.city.kobe.lg.jp/h20870/kuyakusho/nagataku/enzen1/index2/quake03.html>(최종검색일: 2020. 3. 15.).

8 日本ケミカルシューズ工業組合 제공자료; 박승현, 「고베 구두마을 나가타와 제일코리안의 ‘케미컬슈즈’」, 56~60쪽.

9 神戸市, 「新長田駅南地区災害復興第二種市街地再開発事業: 検証報告書概要版 令和3年1月」, 2021. 3., 8쪽.

10 デビッド W. エジントン, 香川貴志·久保倫子 訳, 『よみがえる神戸: 危機と復興契機の地理的不均衡』,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사업 계획이 일사천리에 추진된 것이다. 지진 직후 나가타지역은 건축기준법 제84조에 따라 부흥 사업이 엄밀하게 제어 되는 6개 지역 중 한 군데로 지정되고, ‘고베시 신나가타역남지구 진재부흥 제2종시가지개발사업(이하 신나가타 재개발)’은 한신대지진 부흥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신나가타를 제외한 니시노미야 등 5개 지구의 재개발사업은 2005년까지 완료되었다. 그러나 신나가타 재개발만은 지역 내 의견대립과 토지의 매수 및 매각의 난항으로 기간연장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2019년 효고현과 고베시의 합동청사(新長田合同庁舎) 완공 후, 토지매수가 진척되지 않는 한 구역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리고 2023년까지 현립 종합위생병원을 이전한다는 것을 공식화함으로써 사업종료의 전망이 드러났다. ‘실패한 재개발’이라는 비판이 무성한 가운데 2021년 1월, 최소 328억 엔의 적자라는 전문가 검증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재개발의 ‘실패’는 상업지구에 집중되었다. 미디어에서 신나가타 재개발의 ‘실패’를 다룰 때, 다이쇼스지 상점가의 셔터를 내린 점포들, 대형상가의 공실들이 비춰지곤 한다.

시오자키 요시미쓰(塩崎賢明)가 부흥재해(Reconstruction Disaster)¹¹라는 개념을 처음 쓴 것은 한신대지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는 피난소, 가설주택, 부흥공영주택, 구획정리나 재개발 등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도리어 재해 후의 또 다른 재해를 안기는 역설을 담은 개념이다. 한신대지진 이후에도 지진과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부흥사업이 잇따랐던 일본 사회에서, 특히 동일본대지진이라는 거대 재난 이후 ‘부흥재해’는 보통명사와 같이 쓰이고 있기도 하다. ‘헤이세이 잃어버린 30년의 실패’¹²의 앙킨 실타래를 더듬어 가면 1995년 한신대지진은 그 가장 중요한 매듭이다. 고베 신나가타 재개발사업을 고찰하는 과정은 개발과 성장의 관성 속에서 진행된 부흥사업이 초래한 ‘부흥재해’의 문제를

海靑社, 2014, 73쪽.

11 塩崎賢明, 『復興〈災害〉: 阪神・淡路大震災と東日本大震災』, 岩波新書, 2014.

12 요시미 순야, 서의동 옮김,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0, 29쪽.

조명하고, 성장에서 수축으로 옮겨 가는 시점에 일본의 도시가 처한 모순을 부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326억 엔의 적자와 상점가의 실패

신나가타 재개발 사업종료의 전망이 나온 후, 2021년 1월 25일 <고베시 신나가타역남지구 진재부흥제2종시가지개발사업>의 사업수지, 부동산감정, 회계 등의 검증보고서가 발표되었다.¹³ 검증보고서를 통해 신나가타 재개발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20.1ha의 재개발 규모: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의 신나가타역부터 고마가바야시역(駒ヶ林)의 상업용 면적에 대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수정이 없었다. 2) 상점 공실: 입거 철회나 전출이 잇달아, 상업면적의 분양 및 임대 총면적은 전체의 47%인 약 2만 4,700m²에 머물러, 절반 이상이 빈 점포인 상태다.¹⁴ 3) 최소 326억 엔 적자: 지가 대폭 하락과 수익 악화로 사업완료 시점에 예상되는 적자는 326억 엔에 달하며, 그 외에도 181억 엔 분의 상업용면적(商業床)이 매각되지 않은 채 임대되고 있어, 적자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고베시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과 건물을 정비하여, 내진(耐震)과 내연(耐燃)화 100%를 달성하고, 도로폭을 넓히고 공용부분 등 공공성 높은 공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피재권리자의 조기생활재건',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도시기능 갱신'이라는 사업목적이 대체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한다. 덧붙

13 고베시는 2020년 8월부터 대학교수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유식자회의(최장 가토 요시마사(加藤惠正) 효고현립대 대학원 교수)를 네 차례 개회하여 그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14 2020년 7월 30일 시점에 사업완료 예정 연도(2023)까지의 전체 사업수지 평가의 상세는 다음과 같다.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 사업비 2,279억 엔, 보조금·매각금 등의 사업수입 1,772억 엔, 향후 상업지매각예상액 181억 엔으로 사업수지는 마이너스 326억 엔으로 예상된다. 적자는 일반회계 이월금으로 대응(2019년 말 시점에서 299억 엔 총당 완료함)한다. 고베시는 상업 공간 약 6만 7,000m²를 조성했으나, 약 3만 9,000m²는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다. 326억 엔은 이것이 모두 매각이 된다는 상정하의 적자규모이며, 고베시가 소유하고 있는 181억 엔분도 매각이 어렵기에, 사실상 적자는 500억 엔 이상이 될 수 있다.

붙여 사회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계획을 수정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으며, 상점가의 활기를 찾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생겼으나 대규모 진재부흥사업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며, 지가 하락이 계속되어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¹⁵

매스컴을 통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326억 엔에 달하는 적자 규모였다. 신나가타 재개발의 ‘실패’를 다룬 방송들에서 상점 경영자들은 유례없는 “재개발사업의 대실패”¹⁶라고 비판했다. “적자규모를 보니 지역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¹⁷ “사회정세로 이렇게 되었다는 등 행정의 핑계”라는 비판도 있었다.¹⁸ 이와 같은 상점가의 분노는 재개발 이후의 상점가가 지진 이전의 상황과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 심했다. “지진 전에는 대단히 활기찬 곳이었는데 말끔한 유령도시(ゴーストタウン)가 됐다”, “완전한 실패다. 셔터 거리가 되었다.” 등의 뉴스 댓글들이 상점가의 사정을 대변했다. 상점 경영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세를 놓고 싶어도 빌리는 사람이 없다. 가게를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¹⁹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7년간 이어진 ‘부흥재해’ 그 실패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이 계획은 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나를 짚어 보기로 하자.

15 神戸市, 「新長田駅南地区災害復興第二種市街地再開発事業: 検証報告書概要版 令和3年1月」, 2021. 3., 20쪽.

16 MBS News 〈震災から26年『新長田の復興再開発』を検証…見えてきた“住民置き去りの街づくり”〉 2020. 12. 2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jfm5Lh52oTk>(최종검색일: 2021. 7. 21.).

17 「新長田再開発, 神戸市検証 規模縮小, 見直しできず 震災後, 商業者半分に」, 『毎日新聞 兵庫地方版』 2020. 12. 24.

18 ABCテレビ 〈阪神淡路大震災からまもなく26年〉 2021. 1. 1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rtTtK4d4Xs&t=34s>(최종검색일: 2021. 7. 21.).

19 NHK仙台放送局 〈復興はしたけれど~神戸 新長田再開発: 19年目の現実〉 2016. 4. 8.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MTfVC8N5sBM>(최종검색일: 2021. 6. 1.); 「新長田再開発事業, ‘商業にぎわいに課題’神戸市が検証報告書」, 『神戸新聞NEXT』 2020. 12. 23.

3. 1995년 시점에서 본 재난 자본주의

1) 재개발사업은 왜 그다지 성공했나

한신대지진 진재부흥의 구획정리에 있어서 ‘건축제한’은 가장 앞머리에 있는 규정이었다. 이는 무질서한 지역재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법 제 84조에 따라 최장 2개월 건축제한이 가능한 조항이다. 일본사의 많은 ‘부흥’의 경험 속에서 임시거주를 지은 후 거주권을 주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싸게 사들이는 등의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기에 ‘건축제한’의 규정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5년 2월 26일 피해자가지부흥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건축제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2개월 만에 고베시, 니시노미야시, 다카라즈카시의 6개 지구(총 33.4ha, 사업비 합계 약 4,890억 엔)에 대한 재개발사업 계획이 결정되었다. 그중 신나가타역남지구는 20.1ha, 2,710억 엔의 가장 큰 규모로, 조기 생활재건, 방재거점 구축, 도시기능 갱신을 목적으로 한 <진재부흥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이 1995년 3월 17일 발표되었다.

‘제2종시가지재개발사업’이란 고베시가 지구 내의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관리처분방식’을 의미한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부흥이며, 토지가 세분화되어 소유 및 관리 관계가 복잡하며, 세입자가 많은 지구라는 나가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주도의 도시계획사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행정 권한이 강한 제2종재개발방식(강제수용도 가능)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소유자들은 건물이나 토지를 고베시에 팔고 지역을 떠날 것인지, 재개발건물의 구획을 다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당시 고베시와 효고현의 도시계획심의회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성급한 결정이다.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²⁰ 당시 고베시 도시계획 지방심의회에는 2,000건 이상, 니시노미야에는 600건 이상의

20 門野隆弘, 「工場も家も失ったケミカル業界」, 酒井道雄 編, 『神戸発阪神大震災以後』, 岩波書店, 1995, 109쪽.

주민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절반 이상이 절차가 비민주적이고 관료행정 위주임을 들어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²¹

절차의 부당함은 1) 도시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지진으로 인해 지역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지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고지되고 총람(總覽)이라는 절차가 진행된 점, 2) 총람의 방법이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려는 자세가 아니었던 점, 3) 주민 협의 없이 각 시의 도시계획심의회나 현심의회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었다. 인구 150만 명의 고베시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총람장소는 시청에 가까운 한 곳이었고, 교통이 상당 기간 불통이었던데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집을 잃거나 부상을 입어 열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다구(灘区) 재개발 대상지구는 90%, 히가시나다구(東灘区)의 재개발 대상지구의 약 70% 주민이 지진 피해로 지역을 떠난 상태였다. 나가타지역 역시 화재와 붕괴로 인한 주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었기에 피해자들이 지역을 떠났거나 피난소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속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전에 심의회가 열리는 등 재개발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협의 없이 행정주도의 일방적인 재개발계획이 내려진 것이다.²²

고베시는 조속히 부흥방침을 제시할 필요성, 법률의 제한으로 생활재건이 방해받는 것에 더해, 도시계획 결정으로 국가보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²³ 피해액 9조 9,000억 엔은 당시 효고현 예산의 약 6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신나가타역남지구는 전형적인 시타마치(下町)였다. 나가타는 1980년대까지 잘 나가는 곳이었다. 어디보다 먼저 상점들이 생기고 손님이 많았던 곳이다. 80년대 상점이 잘 됐기 때문에 다들 돈을 많이 벌었다. 신나가타의 지가가 산노미야

21 塩崎賢明, 「復興都市計画と民主主義」, 『世界』 1995. 5., 83~88쪽(김호섭, 「고베지진 부흥계획」, 김경동 편, 『일본 사회의 재해관리: 고베지진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136쪽 재인용).

22 김호섭, 「고베지진 부흥계획」, 87~140쪽.

23 『朝日新聞』, 1995. 3. 17(김호섭, 「고베지진 부흥계획」, 137쪽 재인용).

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비쌌다. 90년대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진이 났다. 1965년에 시작된 종합계획이 1995년에 끝났기 때문에, 1994년에 종합계획의 초안이 이미 잡혔다. 구(区)마다의 구별 개발이 우선시되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었다. 인쇄하고 심의회까지도 했다. 1995년 3월에는 발표하고 실행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재해부흥에) 그 종합계획의 프레임을 썼다. 간토대지진 당시에도 1년 전에 세운 대정비계획을 베이스로 했다. 고베도 그랬다. 프레임이랄까 전체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재지역의 생활재건을 위한 계획을 더하면 되는 것이었다. 전체 방향이 인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흥계획을 더하면 되는 것이었다. 물론 피재지의 구획정리나 재개발에 있어 피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면이 있다[고바야시 이쿠오(小林郁雄) 씨 인터뷰 2021. 8. 27.].

고바야시 이쿠오 씨²⁴의 설명과 같이, 거대 재개발계획이 이다지도 단기간에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나가타지역을 서쪽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절묘하게도 1995년은 1965년에 시작된 고베시의 1차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고베시종합기본계획’이 완성된 해였다. 이 마스터플랜은 패전 후 전재부흥계획에 이어 고도경제성장기의 절정기에 책정된 장기 도시계획으로, 고베시를 서일본경제권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95년은 30년의 장기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동시에 후속 마스터플랜이 새로이 시작되려는 시점이었다. 고베시는 지진 직전의 ‘제4차 고베종합기본계획’에서도, 그리고 지진 후 1995년 6월에 책정한 ‘고베시진재부흥계획’에서도 도시기능의 광역적 분산과 네트워크화에 기초한 ‘다핵도시구상’을 추진했다. 신나가타 재개발을 서부

24 고바야시 이쿠오는 1986년 주식회사 코·플랜(コー・プラン)을 설립하여 고베시 도시계획, 도시조성, 단지 개발 등에 종사하였다. 한신대지진 이후 지진재해부흥의 도시계획과 마을 만들기, 시민사회활동에 관여하며 인간과방재미래센터(人と防災未来センター) 상급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고베현립대학대학원 감재부흥정책연구과(減災復興政策研究科)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를 할 수 없기에 고바야시 이쿠오 씨와의 온라인 인터뷰로 신나가타역남지구의 개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큰 도움을 받았다.

부도심으로 위치 짓는 사업은 다핵도시구상의 일환이었다. 이 계획은 대지진 이후, 복잡한 소유관계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토지와 건물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고베시의 계획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속에서 속도를 내게 되었다.²⁵

2) 나가타지역은 왜 낙후한 채로 남아 있었나

나가타지역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여러 문헌에서 등장한다. 1995년 출판된 미치가미 게이코(道上圭子)²⁶의 연구에서 나가타구는 케미컬슈스산업이 집중되고, 공업과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으로 묘사된다. 또한 제일한인 거주 비율이 높고, 고령자, 독거노인, 고령자부부 세대의 비율이 높으며, 육조가 없는 목조주택이 많고 월세와 물가가 싼 곳으로 묘사된다. 나가타지역의 도시문제는 이미 1971년의 논문에서도 드러나는데, 사회학자 이오카 쓰토무²⁷는 고베시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하고 공장이 밀집하며, 목조뿐 아니라 막사 형태로 공장, 상점, 주택, 숙소 등이 혼재해 도시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나가타지역을 묘사한다. 나가타지역은 도심에 가까운 유리한 조건을 가지면서도 도시기능이나 산업기능의 개선이 지연되고, 노후화가 심화되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이너시티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전형적인 지역이었다.²⁸ 그렇기에 ‘주식회사 고베’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고베시가 공공주도의 대규모 도시개발을 하는 동안 왜 나가타지역은 낙후된 채 남아 지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가를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1945년 태평양 전쟁 막바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25 広原盛明, 『震災・神戸都市計画の検証: 成長型都市計画とインナーシティ再生の課題』, 自治体研究社, 1996, 92쪽.

26 道上圭子, 「地域はもう一つの病棟」, 酒井道雄 編, 『神戸発阪神大震災以後』, 岩波書店, 1995, 10쪽.

27 井岡勉, 「大都市における地域福祉運動(I): 京阪神3つのモノグラフによる考察」, 『華頂短期大学研究紀要』 15号, 1971, 45~46쪽.

28 神戸市, 「新長田駅南地区災害復興第二種市街地再開発事業: 検証報告書概要版(令和3年1月)」, 2021, 3., 7쪽.

1945년 3월 17일, 5월 11일, 6월 5일의 세 차례 대공습으로 고베시 전역이 파괴되었다. 고베대공습²⁹의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사망자 7,524명, 부상자 1만 6,948명이었으며, 가옥 14만 2,586호가 파괴되고 이재민 53만 1,694명이 발생했다.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1988년 애니메이션 〈반딧불의 묘〉는 이 고베대공습을 배경으로 했다. ‘전쟁(戰災)도시’로 지정된 고베시는, 전쟁부흥(戰災復興)의 계획을 책정했다. 전쟁부흥계획이 전후 고베시의 도시골격뿐 아니라 고베 독자의 도시계획방식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다. 1946년 3월 고베시는 전후 복구와 개선을 위해 최초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데, 당시 폭격의 피해를 면한 나가타지역을 포함한 서부의 도심지는 ‘전쟁부흥’에서 제외되었다. 나가타지역에 목조집합주택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전전(戰前)부터의 나가야(長屋)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목조집합주택 나가야는 서민주택, 민간임대, 연속된 공동주택이라는 특징이 있다. 건물로서는 일체형이지만, 땅주인이면서 집주인, 땅을 빌린 집주인, 세입자 등 소유관계는 각각이다. 연속된 공동주택이라는 나가야의 특징 때문에 개별적인 재건축이나 증축에 한계가 있고, 공공주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민협의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1980년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고베시는 기존 시가지 재개발보다 교외에 택지를 조성하여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에 집중했다. 고베시 주도의 공공개발은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해안을 따라 개발된 인공섬과 북부 교외의 뉴타운 개발에 전념했고,³⁰ 시민참가와 협의, 정보공개, 주민의 권리조정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너시티(inner city) 정비는 뒤로 밀려 온 것이다.

나가타구와 효고구 등 이너시티 지역이 처해 있던 상황은 지진 직전인 1990년 국제조사 〈표 1〉에서 드러난다. 블루칼라 계층, 고령자,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나가타구의 인구는 1980년부터 1990년의 10년간

29 「神戸の戦災概要」, 神戸市. homepage. <https://www.city.kobe.lg.jp/a44881/bosai/disaster/war01/war02.html>(최종검색일: 2021. 1. 6.).

30 デビッド W. エジントン, 『よみがえる神戸: 危機と復興契機の地理的不均衡』, 65쪽.

〈표 1〉 고베시행정구역별 지진 전의 상황: 인구, 취업, 주택의 특성

	이너시티의 행정구						교외의 행정구			전역
	서쪽			동쪽			다루미구 (垂水区)	기타구 (北区)	니시구 (西区)	
	스마구 (須磨区)	나가타구 (長田区)	효고구 (兵庫区)	주오구 (中央区)	나다구 (灘区)	히가시 나다구 (東灘区)				
인구증감 (1980~1990)	17.2	-16.5	-6.0	0.8	-8.9	3.9	44.7	20.5	-	8.0
65세 이상 인구비율	9.7	16.4	18.8	13.5	14.2	10.8	9.5	9.3	7.9	11.5
블루칼라 취업률	24.7	34.3	28.2	20.6	2.2	22.3	24.2	23.5	26.9	25.1
임대(賃貸)주 택거주자비율	5.0	16.4	18.8	13.5	10.1	6.8	5.4	3.8	3.5	6.9
외국인 인구비율	2.5	6.9	1.8	7.3	2.4	1.3	1.0	0.9	0.6	2.4

출처: 1990년 국세조사보고(デビッド W. エジントン, 『よみがえる神戸—危機と復興契機の地理的不均衡』, 72쪽 재인용)

16.5%나 감소했다. 나가타지역은 대표적인 인구과밀 지역이었기에 이를 두고 인구과밀이 해소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교외 뉴타운 개발에 따라 젊고 소득이 높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쇠퇴는 가중되었다. 그런 가운데 값싼 주거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및 외국인, 고령자가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1971년 이오카 쓰토무의 연구에서 나가타가 인구과밀지역으로 묘사되는 것에 비해 1995년의 미치가미 게이코의 연구에서 나가타가 고령자의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시사한다.

4. 상점가는 왜 실패했나

1) 과도한 규모와 유지비 문제

JR신나가타역부터 2001년 고베지하철 가이간센(神戸市営地下鉄海岸線) 개통과 함께 생긴 고마가바야시역(駒ヶ林駅)역 사이에 주상복합건물인 ‘아스타 구니

즈카'(アスタくにづか) 1호관~6호관이 건설되고, 종래의 권리자들은 새 건물 점포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이 '아스타 타운' 상업면적의 '과도한 규모' 문제는 2021년 검증보고서에서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며, 계획단계에서도, 그리고 진재부흥 10년의 시점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 안도 모토오(安藤元夫)³¹는 2004년 12월에 신나가타 재개발사업으로 완성된 재개발빌딩에 입주한 점포 경영자 24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재개발로 인한 도시 경관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전형적인 시타마치였던 거리의 상점이나 주택을 빌딩 속으로 집약하고, 고층화하여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조했다는 점인데, 이러한 변화가 상점경영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주목해 보자.

조사가 진행된 2005년 당시 재개발빌딩의 점포 총 385구획 중 입주한 점포는 292곳, 빈 점포는 24%인 93곳이었다. 특히 2층 이상과 지하의 빈점포율이 높았다. 초기에 입주한 점포 중에 이미 문을 닫은 곳도 있다. 2005년 조사 결과를 통해 당시 상점가를 그려 보면, 입주 전의 예상 매상과 입주 후의 매상의 결과에 있어서 '높아졌다'는 평가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3배 가까이 많으며, 임차인의 71%가 이용객이 적은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지진 이전부터 이곳 상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이들은 재난 이전과 비교해 시타마치(下町)적인 활기를 잃어버린 것을 큰 문제로 꼽았다.

재개발 진행에 있어서 '현재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14%에 불과했으며 '점포 면적을 줄여야 한다' 21%, '고층 대신 중층, 저층 중심이 되어야 한다' 37%, '미착공 구역에는 구획정리 등 평면적 사업을 해야 한다' 15%, '미착공 구역은 재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3% 등 현재 재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의견이 재개발사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74%로 높아, 행정주도의 재개

31 安藤元夫, 「新長田駅南地区復興再開発ビル入居店舗経営者の意識調査による事業評価に関する研究」, 『日本都市計画学会都市計画論文集』 40卷 3号, 2005. 10., 937~942쪽. 본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완성된 재개발 빌딩에 입주-빈점포 상황을 조사하여, 재개발 빌딩 입주동향을 파악한다. 2) 재개발빌딩 입주점포경영자 앙케이트 조사로 경영실태 및 재개발사업의 필요성, 문제점을 분석한다. 3) 지진 4년 후, 8년 후의 앙케이트와 10년 후 시점의 앙케이트 조사를 비교하여, 경영상태의 변화나 진재 회복률,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등의 변화를 파악한다.

발이 가지는 문제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재개발지구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재개발이 완료되어 점포와 주택이 완성될 것이다’는 11%에 불과했고, ‘다 지어도 빈 점포나 빈집이 많을 것이다’ 45%, ‘고스트 타운이 될 우려가 있다’ 31%로 점포 경영자들의 미래 전망이 매우 어두웠다.

과도한 규모는 공실문제뿐 아니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시켰다. 엘리베이터나 공용전기세 등 관리비, 고정자산세 등 대형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드는 시스템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지진 이전부터 이곳 상점가에서 주문양복점을 운영한 A씨는 “재해 당시에 40대였다. 새 건물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놀란 것은 고정경비가 너무 비싸졌다는 점이다. 재해 전에는 토지임대료가 매달 1만 4,000엔이었는데, 지금은 고정자산세가 연간 26만 7,400엔으로 한 달에 2만 3,000엔 가량이다. 관리비와 수선적 적립금(積立金)이 이전보다 5배 이상 올라 매달 8만 엔을 내고 있다.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데, 손님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생활재건, 상점재건이었으니 이 지구에서 상업을 하려면 들어가야 한다고 선택했다. 그게 큰 오산이었다.”라고 말한다. 대지진 이전부터 음식점을 해 온 B씨는 재개발 결정이 지진 발생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음을 언급하며 “날마다 물이나 밥 걱정에 쫓기는 가운데 계획이 정해졌다. 시타마치였던 곳에 분수에 맞지 않는 건물(ハコモノ)을 너무 많이 지었다.”³²라며 그만두고 싶어도 점포가 팔리지 않는 상황을 토로했다. 지진으로 운영하던 식당이 전소했으나, 고베시에 권리를 팔고 떠난 C씨는 “관리비가 비싸서 절대 장사 못 한다. 내가 고베시 점포를 샀다면 야반도주했을 것이다.”³³라고 한다.

32 「震災前より人口増えたが…にぎわい戻らず長田の再開発」, 『朝日新聞』 2020. 1. 17.

33 ABCテレビ 〈阪神淡路大震災からまもなく26年〉 2021. 1. 13. 방송.

2) 지가 하락에 따른 분열

지가 하락은 재개발 적자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상점 경영자 간의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점포를 사서 입점한 이들은 대지진 이전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여기서 상업을 해 온 이들이다. 종전의 권리자들은 고베시의 2종 재개발사업 방침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팔고 지역을 떠나거나, 재개발빌딩에 입점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기존의 소유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재개발 후 점포가 비싸기에 대출을 받아 입점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점포 내부 인테리어 비용 및 높은 관리비가 더해진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예상보다 입점이 적고 공실이 늘어나자 고베시는 빈 상점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 내놓기 시작했다. 한 시민극단은 145m²의 고베시 소유 점포를 빌려 쓰고 있는데 관리비가 한 달에 10만 1,149엔으로 비싼 대신 월세를 감면받아 1만 엔을 내고 있다. 높은 관리비 대신 고베시와 부흥기금으로부터 월세를 보조받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재개발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가운데, 임대료 하락은 자산가치를 더욱 떨어뜨려 분양을 받은 기존 권리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고베시에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주택은 값을 내리면 누군가는 사지 않는가. 그런데 상점은 싸다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나. 주위에 빈 가게가 많으면 누가 상점을 내겠나. 집은 다소 리스크 있어도 들어가지만 가게는 그럴 수가 없다. 비싼 돈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상점이 비니까, 새로 오는 사람은 더 싼 임대료로 들어오지 않았겠나.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재개발은 일반 개발과는 다르다. 더구나 20년 재해 복구는 일반 재개발과 다르다. 빌딩 한 채만 지으면 한 채로 얘기가 끝나지만 열 채 스무 채 짓는 것이 어찌 20년 변치 않는다 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한신대지진 직후에 산 집이 지금은 반값이다. 처음 계획한 지점에서 생각한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불평을 해야 되겠는가. 원인은 고베가 상점을 너무 많이 만든 것에 있다. 신나가타 기존 점포들이 다 줄어들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바야시 이쿠오 씨 인터뷰 2020. 5. 31.).

신나가타역남지구 상점가는 ‘고스트타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지구의 주택은 ‘완관’되었다. 재개발의 진행과 함께 지진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택공급을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고베시와 민간기업의 주택이 지진 전의 약 2배인 2,800호가 정비되어, 인구는 한신대지진 이전 4,456명(1995년 1월)에서 6,058명의 약 1.4배(2020년 6월 시점)로 늘어났다. 그러나 고베시 중심부와 오사카시 등으로의 통근자도 늘면서 낮 인구는 1991년 4,906명에서 2016년은 3,271명으로 약 3할이 줄었고, 이는 상점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³⁴

상점가의 쇠퇴는 신나가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역의 많은 지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나가타지역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한신대지진으로 인해 나가타지역의 생활기반과 생산기반이 일순간에 무너졌기에 나가타지역의 부흥이란 도시의 인프라가 완전히 재정비되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지역사회 경관뿐 아니라 지역산업과 커뮤니티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진 전 나가타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공업’의 중심이었던 구두산업이 재난 이후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그 균형이 깨졌고, 지역 내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소비하던 순환이 끊기면서 베드타운으로 지역의 속성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5. 고베 성장주의 도시계획의 계보

1) 도시경영을 주도한 행정관료들

고베의 전재부흥에서 주목할 점은 전재부흥사업을 통해 이후 고베시장이 되

34 고베시 인구는 2004년 11월 1일 기준 1,520,581명으로, 대지진 직전인 1995년 1월 1일 기준 1,520,365명에 비해 9년 10개월 만에 인구 수준을 회복했다. 지진으로 고베시민의 4,57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헤이세이 7년에야 자연증가(2,488명)가 시작된다. 나가타구는 대지진 직후 74.5%까지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2004년 인구는 대지진 전의 80.1%에 머물러, 인구회복이 가장 저조했다(企画調整局総合計画課, 神戸市統計報告特別号, 平成16年11月9日, 「神戸市人口震災前人口を超える: 平成16年11月1日現在推計人口」).

어 행정 및 관료주도 도시계획으로 이름을 떨치는 하라구치 주지로(原口忠次郎: 1949~1969년 시장 역임), 미야자키 다쓰오(宮崎辰雄: 1969~1989년 시장 역임), 한신대지진 진재부흥을 주도한 사사야마 가즈토시(笹山幸俊: 1989~2001년 시장 역임) 시장이 도시계획을 주도하는 행정관료로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한신대지진의 진재부흥은 거슬러 올라가면 고베 진재부흥 경험의 유산이다. 패전 후 고베시의 ‘고베시부흥기본계획요강’(1946년 3월)은 중앙정부의 ‘부흥국토계획요강’보다도 반년이나 일찍 시행되어 ‘국제적 무역해운도시·고베시’의 건설을 목표로 도시확장을 추진한다. 진재부흥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국가 보조가 8할이고, 현이 1할, 시의 부담이 1할로 이루어졌는데, 고베시는 민간의 사유지를 구입하여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터 등을 구입해 경륜장, 동물원,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렸다.³⁵ 부흥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23년 간토대지진 이후의 도쿄 제도부흥계획(帝都復興計画) 역시 존재한다. 제도부흥계획하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구획정리가 실시되었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이면 주택지가 일소되고, 도로망과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다. ‘제도부흥사업’으로 촉진된 도시화와 교외화로 도쿄가 단숨에 확대되고, 이는 도쿄가 진정으로 ‘에도와 결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부흥의 역사와 계보 속에서 한신대지진의 부흥사업이 전개된 것이다.³⁶

하라구치 주지로는 전쟁 중 내무성 토목관료로서 만주국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롯코산 치산치수, 효고현 남부 및 시코쿠 4현의 국토관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고베시진재부흥기본계획을 기획하고 입안했으며, 당시 그를 보좌한 이가 미야자키 다쓰오다. 이후 하라구치는 1949년부터 1969년까지 20년간 고베시장을 역임하며 전후 부흥사업에 앞장섰다.

미야자키 다쓰오는 1937년 고베시에 취직하여 1945년부터 진재부흥

35 財団法人神戸都市問題研究所 編, 『神戸/海上文化都市への構図』, 勁草書房, 1981, 42, 52쪽; 広原盛明, 『震災・神戸都市計画の検証: 成長型都市計画とインナーシティ再生の課題』, 20쪽 재인용.

36 후쿠시마 료타, 안지영·차은정 옮김, 『부흥문화론: 일본적 창조적 계보』, 리시울, 2016, 350~351쪽.

본부에서 일했고, 1953~1969년에는 고베도시계획의 기본이념과 골격을 짠 ‘고베시총합기본계획심의회’의 부회장을 맡았다. 이어서 1969년부터 1989년까지 20년간 고베시장을 역임했는데, 경제대국으로 일본의 자부심이 넘치던 이 시기에 고베시 도시경영은 공공개발자(public developer)로 각광을 받는다.

미야자키 시장이 1985년 『일본경제신문』에 연재한 ‘나의 이력서’는 한국에서 출판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는 “포트아일랜드 포토피아81에서 100억 엔을 벌었다거나 외채 선물예약으로 100억 엔의 외환차익을 남겼다는 등의 풍문도 있었고, 최근에는 고베 와인이나 고베 생수의 인기를 두고 고베시는 시내 최대의 기업이라는 평판을 받는다.”라고 자랑스레 말하며 ‘최소 경비로 최대의 시민복지를 실현’하는 도시경영을 강조한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복지뿐 아니라 채산성이 요구되는 기업적 행정도 중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경영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장의 책임이고 임무다. 대도시는 공공의 복합기업이기에 시장은 정치가로서보다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³⁷ 미야자키 시장의 시정은 기업적 도시경영으로 중앙지배에서 벗어난 자율성을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공공디벨로퍼야말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이라는 자부심 또한 높았다.

1989년 고베시장으로 당선된 사사야마 가즈토시(1989년부터 2001년까지 고베시장 역임) 역시 1946년 토목건설자로서 전재부흥을 담당하는 부흥본부기획과에서 출발하여, 1981년 도시계획국장으로서 포트아일랜드 완공에 맞추어 ‘포트아일랜드선’을 개통시킨 인물이다. 이와 같은 경력 덕분에 그가 한신대지진 부흥에 있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전재부흥’의 경험이었다. 사사야마 시장은 ‘고베전재부흥지’를 고베시의 ‘바이블’로 보며, “지진 직후 시청에 도착했을 때 떠오른 것은 전재부흥계획이다. 전후를 다시 하는 거

37 미야자키 다쓰오, 오윤표 옮김, 『고베의 도시경영: 20년 고베시장 미야자키 다쓰오의 ‘나의 이력서’』, 세종출판사, 1994, 11~15쪽.

다.³⁸라는 기획 속에 한신대지진 이후의 고베를 구상했다.

2) 참사에 편승한 재개발사업

패전 이후의 진재부흥이 한신대지진 이후 진재부흥의 ‘바이블’이었다 하더라도, 1945년부터의 부흥사업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를 향해 가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95년 이후는 두 가지 모두 정점을 찍고 버블경제 붕괴의 후유증이 확산해진 시기였다. 고베시는 1980년대에 ‘주식회사 고베’라는 부러움 섞인 야유를 받을 정도로 경영적인 수완을 발휘한 지자체다. ‘공공디벨로퍼’로서의 고베시의 역량은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는’ 공공개발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기채(起債)주의, 즉 빚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지를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분양하여 이익을 남기는 고베시의 사업방식은 경제성장, 인구증대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기는 반드시 오른다는 ‘토지 불패 신화’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³⁹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⁴⁰이란 대재해나 대규모 테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망연자실한 상태의 공백을 시장원리주의적 기업이 빠르게 파고들어 영리를 추구하는 일련의 재해 비즈니스를 가리킨다. 고베시의 진재부흥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재난 자본주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참사에 편승하여,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불가능할 커뮤니티의 공백기에 일방적인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⁴¹ 대지진과 그에 이어진 화재로 폐허가 된 도시는 지진 이전에는 손댈 수 없었던 지역의 재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도시계획자들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끌어내어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프로젝

38 『神戸新聞』1995. 8. 10.; 池田清, 『神戸近代都市の過去・現在・未来: 災害と人口減少都市から持続可能な幸福都市へ』, 社会評論社, 2019, 176쪽.

39 広原盛明, 『震災・神戸都市計画の検証: 成長型都市計画とインナーシティ再生の課題』, 23쪽.

40 나오미 클라인, 김소희 옮김, 『쇼크 독트린』, 살림, 2008.

41 池田清, 『災害資本主義と「復興災害」: 人間復興と地域生活再生のために』, 水曜社, 2014.

트를 구상한 것이다.⁴² 한신대지진 이후의 부흥은 ‘창조적 부흥’이라는 슬로건으로 포괄되는데, 이 ‘창조적’이라는 표현의 실상은 ‘개발적 부흥’이었다. 지진 직후에 나온 ‘고베시부흥계획가이드라인’은 ‘반성’이나 ‘교훈’이 아니라 ‘목표’와 ‘비전’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1995년 신나가타 재개발을 추진한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의 기조는 종래의 ‘도시경영’을 가능케 한 객관적인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1995년은 버블붕괴의 충격이 본격화한 해다. 7월 코스모신용조합 파탄, 8월 효고은행 기즈신용조합 파탄 등 1990년대 이후 땅값 상승을 전제로 확대노선을 밟아 온 금융업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백서’의 재정 관련 기술을 보면 1995년까지는 공공투자의 경기부양의 효과가 중심 내용이었으나, 1996년부터 재정적자 확대, 그 결과 국채 발행 잔고 증가, GDP대비 비율 상승 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신대지진 당시의 고베시의 재정 역시 한계에 달해 있었다. 지방채상환비율이 해당 지자체 세입의 20%를 초과하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논하게 되는데, 고베시의 경우 지진 1년 전에 이미 22.5%에 달해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⁴³ 더욱이 1995년 11월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대장상의 ‘재정 위기 선언’ 이후 재정 위기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고, “세계화의 진전과 격심한 환경 변화에 일본 경제가 못 따라가고 있다. 위기다. 앞날이 어둡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등 일본경제 위기설이 빈번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제기획청의 ‘연차경제보고’(1996년판) 서두의 총론은 “전후 50년을 맞이한 일본 경제는 지금 역사적인 구조조정기에 있다. …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구조와 시스템, 경제 정책의 체계에 변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매달려서는 일본 경제의 미래는 없다.”라고 끝을 맺는다.⁴⁴

42 デビッド W. エジントン, 『よみがえる神戸-危機と復興契機の地理的不均衡』, 7쪽.

43 Hirayama Yosuke, “Collapse and Reconstruction: Housing Recovery Policy in Kobe After the Hanshin Great Earthquake,” *Housing Studies* Vol. 15, No. 1, pp. 111~128.

44 안베 유키오, 홍채훈 옮김, 『일본 경제 30년사: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페이지21, 2020, 96~101쪽.

일본형 복지의 근간을 이루던 고용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1995년이다. 1995년,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은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제를 부정하고, 파트타임이나 파견 등의 비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유연화’를 주장했다. 1994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 일본은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돌입했다. 이 ‘역사적인 구조조정기’에 부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했는가는 자명하다. 그룹에도 신나가타 재개발은 관료주의와 성장주의, 개발주의의 낙관적인 관성 속에서 출발했으며, 도시는 축소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실패가 가시화된 이후에도 행정 내부에서 책임지는 이가 없었으며, 계획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제어력 또한 부재한 탓에, 고베시는 부흥의 과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

6. 맺으며

본 연구에서는 1995년 한신대지진 이후 나가타지역 27년의 재개발사업을 조명하며 그 ‘실패’의 자취를 고찰했다. 나가타지역은 전후 고베 도시경영이 초래한 지리적인 불평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면서도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나가타지역은 대지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고, 부흥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삶의 역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커뮤니티가 무너진 공백을 파고들었다. 1995년 일본 사회에 종래의 고베식 도시경영을 가능케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의 관성 속에서 신나가타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한신대지진으로부터 27년이 지난 오늘날 신나가타 재개발은 대표적인 ‘부흥재해’의 사례로 꼽히며, 사업종료의 시점의 나가타지역에 다시금 부흥의 과제를 안기고 있다.

신나가타 재개발의 실패가 고베 부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나가타 재개발사업은 한신대지진 최대 피해지에 대한 최대 규모

의 부흥사업이었기에 이로 인한 도시의 변화와 그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재난과 부흥사업의 계보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로도 이어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부흥'에 주목한 오은정⁴⁵은 부흥청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재건, 생산설비의 복구, 도로 재건의 과정을 관찰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 도미오카 마을의 '스마트타운' 구상에 주목하며, 쓰나미가 지나간 해변에 엄청난 비용을 들인 방파제가 설치되고,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는 마을의 도로가 말끔하게 정비되는 등 '부흥'이라는 주문(呪文) 속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도쿄 전력의 '대규모 참여'가 자본주의적 욕망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고찰한다.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가 일본 사회에 던진 과제만큼 '부흥'이 던지는 과제 역시 무겁다.

그러나 부흥사업의 성패는 대재난이 일본 사회에 불러일으킨 변화의 일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후쿠시마 료타⁴⁶는 일본인에게 자연 재해와 패전 후의 부흥이 '삶의 보람'이었다고 서술한 하야시야 다쓰사부로(林屋辰三郎)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일본의 부흥기를 부흥의 에너지와 생기가 넘치는 시대로 기술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소재나 방법론을 끌어들이 재난의 흔적, 기존 시스템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고 부상당한 사회를 일으켜 세운 창조적인 부흥 문화의 계보를 짚어 보는 것이다. 대재난의 경험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어 왔다. 이은경⁴⁷은 1923년 간토 대지진이 당시 일본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인 생활의 바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에 주목하며, 여성계 지도자들은 대지진의 경험과 제도부흥을 여성 해방의 기회로 인식했으며, 대지진을 계기로 형성된 연대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조명한다. 한편, 2011년 일본을

45 오은정, 「재후(災後)의 시공간에 울려 퍼지는 '부흥'이라는 주문(呪文):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흥의 사회 드라마와 느린 폭력」, 『한국문화인류학』 53권 3호, 2020, 344~346쪽.

46 林屋辰三郎 等, 『日本史のしくみ-変革と情報の史観』, 中央文庫, 1976, 202쪽; 후쿠시마 료타, 『부흥 문화론: 일본적 창조의 계보』, 407쪽.

47 이은경, 「여성과 '제도부흥', 1923~1924」, 『근대 일본 여성 분투기』, 한울아카데미, 2021, 177~213쪽.

파국으로 몰아넣은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는 대규모 시위의 부활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냈다. 3·11 이후 2년 반 동안 일본의 모든 도도부현에서 탈원전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는 1960년 안보투쟁과 1968년 학생운동 이후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운동이 일어난 최초의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⁴⁸

한신대지진 이후 1995년은 일본 볼런티어의 원년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후 고베는 시민사회 활동의 중심 무대이자 전국 재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다. 대재난 속에서 개발과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음에 대한 사회적 각성 또한 있었다. 나가타지역은 한신대지진 이후 도시계획 및 지역재생을 둘러싼 지역주민의 연대와 타협, 다문화공생 등 시민사회의 실천이 집중된 곳이다. 고베시가 주도한 개발계획의 다른 한 축에는 지역 시민사회가 존재하며, 오늘날 나가타 지역의 경관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갈등과 타협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신대지진 이후 고베는 일본에서 가장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이 출렁이는 시간과 공간의 결들을 살려 기록하는 것을 이후의 작업으로 남기고자 한다.

48 정지희, 「보수화하는 사회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 김효진 등,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여섯 가지 시선』, 위즈덤하우스, 2018, 129~135쪽.

- 백지윤, 「량 치차오(梁啟超)의 사회진화론: 계몽주의의 종교적 재구성」, 『중국어문학논집』 55, 2009.
- 와타나베 히로시, 「'교(教)'와 음모: 국체(國體)의 한 기원」, 와타나베 히로시·박충석 엮음, 『한국·일본·'서양』,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2008.
- 이세봄, 「메이로쿠샤(明六社) 지식인의 religion 이해의 맥락: 니시 아마네(西周)의 「교문론」 분석」, 『일본사상』 제32호, 2017. 6.
- 이세봄, 「메이지 전기 한학(漢學)의 유효성 논의: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논리」, 『동방학지』 191집, 2020.
- 호시노 세이지, 이예안·이한정 옮김, 『만들어진 종교: 메이지 초기 일본을 관통한 종교라는 물음』, 글항아리, 2020.
- クリントン・ゴダール著・碧海寿広 訳, 『ダーウィン, 仏教, 神: 近代日本の進化論と宗教』, 人文書院, 2020.
- 黒住真, 『民衆仏教の定着』, 佼成出版社, 2010.
- 黒住真, 『複數性の日本思想』, ぺりかん社, 2003.
- 小泉仰, 『福澤諭吉の宗教観』,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2.
- 小泉仰, 「R.W.エマソンの神論と中村敬字・内村鑑三・北村透谷の受容法」, 慶應義塾福澤研究センター, 『近代日本研究』 第29巻, 2012.
- 河野有理 編, 『近代日本政治思想史: 荻生徂徠から網野善彦まで』, ナカニシヤ出版, 2014.
- 高橋昌郎, 『中村敬字』, 吉川弘文館, 1966.
- 田中友香理, 『〈優勝劣敗〉と明治国家: 加藤弘之の社会進化論』, ぺりかん社, 2019.
- 土屋博政, 『ユニテリアンと福沢諭吉』,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4.
- 松沢弘陽, 『福澤諭吉の思想的格闘: 生と死を越えて』, 岩波書店, 2020.
- 松田宏一郎, 『江戸の知識から明治の政治へ』, ぺりかん社, 2008.
- 山下重一, 『スペンサーと近代日本』, 御茶の水書房, 1983.
- 山室信一, 『法制官僚の時代: 国家の設計と知の歷程』, 木鐸社, 1984.
- 渡辺浩, 『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 増補新装版』, 東京大学出版会, 2016.
- 渡辺浩, 『明治革命・性・文明: 政治思想史の冒険』, 東京大学出版会, 2021.
- 李セボン, 『「自由」を求めた儒者: 中村正直の理想と現実』, 中央公論新社, 2020.

고베 도시경영의 계보와 '부흥재해':

한신대지진 이후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박승현

[문헌 및 논문]

- 김호섭, 「고베지진 부흥계획」, 김경동 엮음,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고베지진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메코맥, 개번, 한경구 등 옮김, 『일본, 허울뿐인 풍요』, 창작과비평사, 1998.
- 미야자키 다쓰오, 오윤표 옮김, 『고베의 도시경영: 20년 고베시장 미야자키 다쓰오의 '나의 이력서』, 세종출판사, 1994.
- 박승현, 「고베 구두마을 나가타와 제일코리안의 '케미컬슈즈」, 지은숙·권숙인·박승현 엮음, 『재일한인의 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안베 유키오, 홍채훈 옮김, 『일본 경제 30년사: 버블에서 아베노믹스까지』, 에이지21, 2020.
- 오은정, 「재후(災後)의 시공간에 울려 퍼지는 ‘부흥’이라는 주문(呪文):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흥의 사회 드라마와 느린 폭력」, 『한국문화인류학』 53(3), 2020.
- 요시미 순야, 서의동 옮김,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0.
- 이원덕, 「고베지진과 일본정부의 위기관리」, 김경동 엮음,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고베지진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이은경, 『근대 일본 여성 분투기』, 한울아카데미, 2021.
- 정지희, 「보수화하는 사회와,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 김효진 등, 『난감한 이웃 일본을 이해하는 여섯 가지 시선』, 위즈덤하우스, 2018.
- 조 지무쇼, 신선영 옮김, 「이국적 낭만과 지진의 아픔이 공존하는 국제 도시」, 『30개 도시로 읽는 일본사』, 다산북스, 2021.
- 클라인, 나오미, 김소희 옮김, 『쇼크 독트린』, 살림, 2008.
- 후쿠시마 료타, 안지영·차은정 옮김, 『부흥문화론: 일본적 창조 의 계보』, 리시울, 2016.
- 安藤元夫, 「新長田駅南地区復興再開発ビル入居店舗経営者の意識調査による事業評価に関する研究」, 『日本都市計画学会都市計画論文集』 No. 40(3), 2005.
- 井岡勉, 「大都市における地域福祉運動(I): 京阪神3つのモノグラフによる考察」, 『華頂短期大学研究紀要第』 15号, 1971.
- 池田清, 『災害資本主義と復興災害』: 人間復興と地域生活再生のために, 水曜社, 2014.
- 池田清, 『神戸近代都市の過去・現在・未来: 災害と人口減少都市から持続可能な幸福都市へ』, 社会評論社, 2019.
- 門野隆弘, 「工場も家も失ったケミカル業界」, 酒井道雄 編, 『神戸発阪神大震災以後』, 岩波書店, 1995.
- 財団法人神戸都市問題研究所 編, 『神戸/海上文化都市への構図』, 勁草書, 1981.
- 塩崎賢明, 「復興都市計画と民主主義」, 『世界』 1995. 5.
- 塩崎賢明, 『復興(災害): 阪神・淡路大震災と東日本大震災』, 岩波書店, 2014.
- デビッド W. エジントン, 香川貴志·久保倫子 訳, 『よみがえる神戸: 危機と復興契機の地理的不均衡』, 海青社, 2014.
- 林屋辰三郎·梅棹忠夫·山崎正和, 『日本史のしくみ: 変革と情報の史観』, 中央文庫, 1976.
- 広原盛明, 『震災・神戸都市計画の検証: 成長型都市計画とインナーシティ再生の課題』, 自治体研究社, 1996.
- 道上圭子, 「地域はもう一つの病棟」, 酒井道雄 編, 『神戸発阪神大震災以後』, 岩波書店, 1995.
- Yosuke, Hirayama, "Collapse and Reconstruction: Housing Recovery Policy in Kobe After the Hanshin Great Earthquake," *Housing Studies* Vol. 15, No. 1.

[고베시자료]

- 企画調整局総合計画課 神戸市統計報告特別号 平成16年11月9日 「神戸市人口震災前人口を超える: 平成16年11月1日現在推計人口」.
- 神戸市 長田區, <https://www.city.kobe.lg.jp/h20870/kuyakusho/nagataku/enzen1/index2/quake03>.

html(최종검색일: 2020. 3. 15.).

「神戸の震災概要」, 神戸市 homepage. <https://www.city.kobe.lg.jp/a44881/bosai/disaster/war01/war02.html>(최종검색일: 2021. 1. 6.).

「新長田駅南地区災害復興第二種市街地再開発事業: 検証報告書概要版(令和3年1月)」, 神戸市, 2021. 3.

[신문 방송]

「データで見る阪神淡路大震災」, 『神戸新聞』, <https://www.kobe-np.co.jp/rentoku/sinsai/graph/sp/p3.shtml>(최종검색일: 2022. 1. 17.).

「新長田再開発, 神戸市検証 規模縮小, 見直しできず 震災後, 商業者半分に」, 『毎日新聞 兵庫地方版』 2020. 12. 24.

「新長田再開発事業, 商業にぎわいに課題」神戸市が検証報告書, 『神戸新聞NEXT』 2020. 12. 23.

「震災前より人口増えたが…にぎわい戻らず長田の再開発」, 『朝日新聞』 2020. 1. 17.

ABCテレビ 〈阪神淡路大震災からまもなく26年〉 2021. 1. 1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rfTtK4d4Xs&t=34s>(최종검색일: 2021. 7. 21.).

MBS News 〈震災から26年『新長田の復興再開発』を検証…見えてきた“住民置き去りの街づく”〉 2020. 12. 2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jfm5Lh52oTk>(최종검색일: 2021. 7. 21.).

NHK仙台放送局 〈復興はしたけれど”~神戸 新長田再開発・19年目の現実〉 2016. 4. 8.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MTfVC8N5sBM>(최종검색일: 2021. 6. 1.).

‘오타쿠 문화 공영권’ 연구: 언어의 전위부대와 보편언어의 영토 | 김일림

김일림,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 담론 속의 ‘일본’: 긍정적 일본 이미지의 형성 구조」, 『일본연구』 37,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김일림, 「20세기 한국 애니메이션업계 종사자의 구술사 연구: 한국 애니메이션업계의 형성 경위 및 교양학의 ‘방법’으로서의 대중문화 탐색」, 『교양학 연구』 7,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18.

김일림, 「일본 서브컬처 담론 운동과 아방가르드의 행방」, 정현 위음, 『네/아니오/좋아요/싫어요/사랑/혐오/댓글/공유: 2000-2020년 한국 대중문화의 초상』, 초타원형, 2020.

남근우, 『조선 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보드리아르, 장, 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 이론』, 민음사, 1992.

슈미트, 칼, 조효원 옮김, 『정치적 낭만주의(Politische Romantik)』, 에디투스, 2020.

실러, 프리드리히, 윤선구 등 옮김,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대화문화아카데미, 2015.

오쓰카 에이지·선정우, 『오쓰카 에이지: 순문학의 죽음, 오타쿠, 스토리텔링을 말하다』, 북바이북, 2015.

오쓰카 에이지, 이영재 등 옮김, 『니쁜 서브컬처 독본』, 새물결, 2018.(미발매 한정 수량 발행)

오쓰카 에이지, 최재혁 옮김, 「범죄소년문학론」, 『문화과학』 88, 2016 겨울호.

오쓰카 에이지, 한정선 옮김, 「애국소년론: ‘일본적 성장소설’ 천황 서사의 구조」, 『일본비평』 9, 서울

이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그리고 1880년대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사회진화론이 정치나 종교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각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1880년대에 일본의 정치가 및 지식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유입된 유니테리언리즘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었고, '천(天)을 중심으로 사교하는 본' 논문의 두 주인공이 이를 이해한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주제어: 유니테리언리즘, 사회진화론,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개화

고베 도시경영의 계보와 '부흥재해':

한신대지진 이후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박승현

1995년 1월 17일 한신대지진은 진도 7.3의 도시직하형지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나가타지역은 고베시의 공공개발에서 밀려나 주거 노후화 및 고령화, 환경문제 등을 안고 있는 전형적인 이너시티였고, 한신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였다. 지진 후 2개월 시점에 고베시는 <신나가타역남지구>를 고베 서부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대지진과 이어진 화재로 폐허가 된 도시는 지진 이전에는 손댈 수 없었던 지역의 재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도시계획자들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끌어내어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러나 신나가타 재개발은 대표적인 '부흥재해'의 사례로 꼽히며, 2023년에야 사업이 종료된다는 전망 속에 최소 328억 엔 적자가 공개된다. 본 연구는 한신대지진 이후 신나가타 27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한신대지진 부흥사업의 중요한 단면을 살펴며, 일본사회가 성장에서 수축으로 옮겨 가는 시점에 처한 모순을 부각한다.

고베시는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주식회사 고베'라는 부러움 섞인 야유를 받을 정도로 경영적인 수완을 발휘한 지자체였다. 고베시 도시경영의 역량은 '산을 깎아서 바다를 매운' 포트아일랜드 건설 등의 공공개발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고베시의 도시경영은 토지가격상승, 경제성장, 인구증가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했다. 1995년은 버블 붕괴의 후유증이 본격화된 시기이며, 종래의 '도시경영'을 가능케 한 조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는 축소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낙관적인 관성 속에서 참사에 편승한 실패가 가시화된 이후에도 계획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제어력이 부재한 탓에, 신나가타 재개발은 '부흥재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업종료 시점에 재차 '부흥'의 과제를 안기고 있다.

주제어: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 한신대지진, 진재부흥, 부흥재해, 재난 자본주의

'오타쿠 문화 공영권' 연구: 언어의 전위부대와 보편 언어의 영토 | 김일림

이 연구는 최근 쇠퇴기에 접어든 오타쿠 문화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발신되는 서브컬처 담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제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글은 이른바 '일본 서브컬처담론 운동'이 동아시아에서는 대동아공영권 당시의 위계질서를 재생한다고 판단하고, 담론에 의한 '오타쿠 문화 공영권'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그 양상에 접근한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서브컬처 담론이 '오타쿠문화 공영권'을 구축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비평가인 오쓰카 에이지가 1987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한 담론과 관련 활동을 설정한다. 오쓰카 에이지는 개인적인 동시에 조직적으로 담론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 서브컬처의 영토를 개척하는 '전위부대'로서의 위용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characteristics to appear. Furthermore, this paper tries to point out that the intellectuals of the same generation who share the same educational background had difficulties in accepting the logic of Japanese Kokutai-ron.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logic of Confucianism underlying their thought.

In order to verify the abov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way intellectuals of the same generation as Nakamura and Fukuzawa understand 'religion'. And then, this paper will be explaining how the theory of Social Darwinism, which was widely spread in the 1880s, was used in politics and religion, and served as a lever to support the arguments of each stand. An analysis of how the two main characters of this paper whose thought were centered on 'heaven(tian)', understood Unitarianism will be provided in the last part.

• **Keywords:** Nakamura Masanao, Fukuzawa Yukichi, Social Darwinism, Unitarianism, civilization

Reconstruction Disaster: The South Shin-Nagata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fter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 PARK Seung-hyun

This paper examines the South Shin-Nagata Urban Redevelopment Project carried out in Kobe, a city heavily damaged by the Great Hanshin Earthquake on the 17th of January, 1995. The urban restructuring of Kobe City in the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had generated local disparity. The earthquake caused heavy damage on the inner-city Nagata ward where the elderly and low-incomers resided. Kobe's city planners implemented a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 on the South Shin-Nagata urban area and received central governmental aid. However, South Shin-Nagata project has been criticized as a 'Reconstruction Disaster' and a deficit of 32.8 billion yen has recently been reported. This study attempts to highlight the failur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contradiction inherent in the transition from growth to contraction of Japanese society.

Kobe City is a local government that has demonstrated its ability to manage the city like a corporation. However, Kobe's urban management was only possible under the conditions of rising land prices,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growth. The year of 1995 was a time when the aftereffects of the bubble economic collapse began and the conditions that enabled 'the construction state' no longer existed. Despite the shrinking of cities, urban planning did not presuppose a reduction, and the redevelopment of Shin-Nagata proceeded amid the optimistic inertia of growth and development. Even though there were already signs of failure, there was no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rol to turn the direction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Thus, the task of Post-Disaster Reconstruction is handed over to the next generation again.

• **Keywords:** The South Shin-Nagata Urban Redevelopment Project,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Post-Disaster Reconstruction, Reconstruction Disaster, Disaster Capitalism.